

부석중 해군참모총장 강정마을 방문 / 해군기지 건설 따른 갈등 사과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 초래 위로드린다”

민군상생발전 협약 체결 “국방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직권 취소키로”



31일 강정마을을 찾은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이 31일 강정마을을 찾아 10년 넘게 이어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부 총장은 이날 오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해군본부·강정마을회 간 민군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유치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회·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행정대집행 등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것을 제주 출신이자 제주사업단장을 역임한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국방부는 해군기지 관사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이제 민·관·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해군참모총장께서 공식 사과하고 상생을 위해 행정대집행 청구 직권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정부에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한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해군과 강정마을회는 민군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통해 국방부 소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협력 프로그램 운영 제주해군기지 장병 자

금식 함양방안 마련 ▷양 당사자 간 민군상생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을 협력키로 했다.

해군과 강정마을회는 협약식 체결 직후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추후 세부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평화네트워크는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앞에서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의 사과 방문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현영중기자

30대 여성 오일장 인근서 숨진채 발견

가족 “편의점 근무 끝내고 귀가 안해... 휴대폰 끊겨” 경찰, 타살 여부 수사 착수

3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제주시 도두1동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A(39)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밭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날 오후 퇴근 후 귀가 시간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A씨의 부모가 이튿날 오전 0시27분쯤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제주시 외도동 중심으로 경찰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 끝에 반나절만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수개의 외상이 발견됐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오후 5-6시 무렵 퇴근해 오후 6-7시쯤 집에 돌아오곤 했지만 이날은 밤

늦도록 귀가하지 않아 A씨의 부모가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집은 제주시 용담동으로 평소 A씨는 버스를 이용해 편의점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운동 삼아 걸어서 집에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약 8개월 전부터 편의점에서 일해왔다고 유가족들은 전했다.

A씨의 외삼촌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통화 연결음이 확인된 시각은 30일 오후 11시40분쯤”이라며 “그 이후부터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아 이때부터 전화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일하는 편의점은 제주시 도두항 근처에 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씨가 일한 편의점과는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져 있다.

경찰은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시신에 수 개의 외상이 남아 있는 지 등 정확한 사인을 부검을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강다혜기자



30대 여성이 31일 제주시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

“화장실 몰카 꼼작파”

제주시 여성공공안심관 운영 관내 225곳 수시로 점검활동

제주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촬영 카메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공공안심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선발된 8명의 여성 공공안심관들은 11월까지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제주시 지역 공중화장실 225곳에서 점검활동을 벌이게 된다. 점검에 앞서 전과탐지기·렌즈탐지기 사용법, 여성폭력 예방교육,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활동 사례 등을 공유했다.

여성 공공안심관들은 2인 1조로 225곳(추차·우도 제외)의 화장실을 4구역으로 나눠 주3회 불시점검을 벌이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문미숙기자

제주 방역 책임자 광복절 집회 독려 ‘논란’

배종면 단장 중앙일간지에 광고... 정당·시민단체 “해임하라”

제주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배종면 제주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광고에 동참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가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배종면 단장을 당장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제주도민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다”며 “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에서 제한했음에도 강행됐던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제주지역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감염병관

리지원단의 배종면 단장이 ‘역사추진단’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직접 진필 사인까지 하면서 버젓이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중앙지에 게재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맡은 사람이 집회를 독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자신의 행태에 반성은 커녕 정세균 총리에게 따지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모습을 보면 배 단장의 머리 속에는 반정부파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영리병원 철화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배 단장의 사상적 견해에 대해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지만, (배 단장이) 제주지역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된 8·15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배 단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단장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광고에 이름을 올렸고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이었고,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강다혜기자

장례식장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여럿이 모이는 장례식장과 유족주점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다.

시는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방역관리 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장례식장에 전파하고, 상황 종료 때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장례식장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

를 배치,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열화상 카메라 설치 권고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례식장 방역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시 지역 8개 장례식장 중 4곳에선 열화상 카메라를, 4곳에선 비접촉식 체온계를 운영중이다. 문미숙기자

Advertisement for '감골묘목' (Grass Seedlings) featuring a list of products like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and '한림종묘' with contact information 010-3690-2453.

Advertisement for '감골 신품종 분양' (New Grass Seedling Distribution) for 2021, listing various grass types like '레드앵무목' and '원터프린스' with contact information 010-2691-1883.

Advertisement for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All Grass Seedling Distribution) with a list of grass types like '유라실생' and '원터프린스' and contact information 064-733-7005.

Advertisement for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Grass Seedling Asmi 4, 5-year old) with a list of grass types like '카라향' and '궁천변이' and contact information 010-2699-2355.